

“車 100만대 생산... 부품업체 육성에 관심을”

역대 광주시장 7명 한자리에 ... 시장발전 조인

“혁신도시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 힘써주길”

역대 관선과 민선 광주시장 7명이 한 자리에 모여 광주 발전을 위한 조인과 고견을 내렸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최인기(제2대)·김동환(제4대)·강영기(제5대)·송언준(제7대)·고재유(제8대)·박광태(제9~10대)·강운태 시장(제6대, 제11대) 등 역대시장 7명을 초청해 시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호남선 KTX 개통,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광주 U대회 개최, 빛가람혁신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으로 광주가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역대 최고의 U대회로 치러내 국격을 높이고 메르스 사태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광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전 시장은 “수년간 준비해 왔기 때문에 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만 좀 더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고재유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중 매립장, 소각장, 화장장 등 주민 기피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면서 “매립장 등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존치, 광산업 적극 육성 등에도 노력해 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언준 전 시장은 “나주 혁신도시 입주가 지역민의 취업 기대 확보와 지역생산품 구매력 증대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교육청 등과 협의해 혁신도시 입주기관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송 전 시장은 또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와 관련,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학교나 지역에서 우수인재, 기술

자 등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부품업체 육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최인기 전 시장은 “한전 에너지밸리 조성에 광주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광주 발전과의 연계 방안, 전남과의 역할 분담 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한전 고등학교 설립 등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아이디어를 내었다.

강영기 전 시장은 “광주의 변화된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광주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금융분야 육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전 시장은 “대회가 끝나면 청결한 도시, 친절한 시민, 자원봉사자가 일등이라는 최고 가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면서 “푸른길 존치, 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한 점검, 환경과 에너지가 결합된 미래 먹거리 발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광태 전 시장은 “혁신도시, 문화전당이 광주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민의 힘으로 문화전당을 키워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가정 아시아문화전당지원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지난 30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역대시장 7명을 초청해 시장발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강운태·강영기·송언준 전 시장, 윤장현 시장, 김동환·고재유·최인기·박광태 전 시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받는다

오늘부터 생활보장제 등 복지3법 시행

수급자 선정에 '중위소득' 개념 첫 적용

1일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수급자 선정에 '중위소득'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승과 세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된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

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 대상자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선정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했다.

그동안 대상자 선정의 기준점 역할을 했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개념이 대체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3년에 한차례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정하는 최저생계비와 달리 매년 결정돼 사회 전체의 여건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56만 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 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 1364원, 4인가구 기준 422만 2533만원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7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기준이 485만원으로 올라간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투,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법 개정에 따라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각 지자체장의 재량도 확대된다. /연남뉴스

정동채 전 장관, 광주 5개 문화단체 위원장 사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광주지역 각종 문화단체 위원장직 등을 사퇴하기로 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신상의 이유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위원장, 광주에이스페어 추진위원장,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충장축제추진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그동안 2015 광주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을 이끌었고 최근 막을 내린 광주국제영화제를 치르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가 사퇴를 결심한 것은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때 문으로 해석된다. 문화단체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권오봉씨

제5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에 권오봉(56·사진)씨가 임명된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2일 퇴임하는 이희봉 제4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후임에 권오봉 전 경제특보가 3일 임명된다. 앞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추천위원회는 권 전 특보를 청장 후보 1순위로 산업자원위원회에 추천했고,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26일 이를 승인했다.

권 전 특보는 여주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6회)에 합격한 뒤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재정분석

과장, 사회재정기획단,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정책국장,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민선 5기 박준영 전남지사 시절에는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지내다 지난해 민선 6기 출범 이후에는 이낙연 지사의 경제특보로 활동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취임식은 6일 열리며 임기는 3년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광주 2878·전남 5878가구 신청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6월 1~25일)동안 총 2878가구가 접수했다.

이는 목표치인 2957가구의 98.3%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 3만5126가구 대비 8.2% 비율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5800여 가구가 접

수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81만 7259가구 대비 7.4%인 6만425가구가, 전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4만5784가구의 12.8%인 5878가구가 신청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가·지자체 공무원 채용정보 '한눈에'

'공무원되기' 홈페이지 3일 개통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채용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 관련 통합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가 3일 개통된다고 인사혁신처가 30일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는 그동안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대통령경호실, 우정사업본부 등 과 지자체 등이 개별적으로 제공했던 채

용 관련 정보가 모두 실려 있어 각종 공무원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혁신처는 설명했다.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는 채용정보 외에 공무원이 갖춰야 할 공직 가치, 직무별 직무소개서, 재직자의 인터뷰 등 다양한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고 혁신처는 밝혔다.

혁신처는 “앞으로 이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모든 직종의 공무원 채용정보와 채용제도 등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춘향남원 사랑의 변 **1** **★**
 맛과 멋이 특별한 **남원시의 여름**
 지리산 물소리에 몸과 마음이 시원~
 우리 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남원시